

연구원 소식

2022년 지역출판산업활성화 사업
전남·북 독서 리더를 위한 <역사> 교육컨텐츠 강좌 안내

전주 지역사 재조명

-여지도서(輿地圖書)를 중심으로-

강사 : 변주승 교수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연주 : 양정오(플룻), 변재홍(첼로)

*일정 : 07월 16일(토) 16시
*장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Elgar - Salut d' amour
**Claude Bolling - Irlandaise
***티파니에서 아침을 - 문리버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인생의 회전목마 외

세부 순서
16:00~17:00 : 강좌
17:00~17:30 : 연주회
17:30~18:30 : 토론 및 질의 응답

조광 前 국사편찬위원장 연구원 방문

우리 연구원의 1, 2대 원장이자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조광 원장님께서 지난 7월 1일 연구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정말 모처럼 뵙게 된 조광 원장님은 건강하신 모습으로 모두의 우려를 기우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번 방문은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사업단 특강 차 전주를 방문하시며 이뤄졌습니다. 연구원 원장님으로 재직중이실 때는 물론 퇴임 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조광 원장님께 깊은 감사와 강녕을 기원드립니다.



전주 기자촌 지역 과거 사진, 문서 자료 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오는 6월 2일부터 진행할 기자촌지역 재개발에 따른 마을기록화 사업과 관련해 기자촌 지역과 관련한 근현대 자료를 구합니다.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회원이나 소장자를 알고 계시는 회원께서는 해체되는 마을이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장례식을 통해 이전 된 광장의 소유권 - 1987년 7월 9일

한국 현대사에서 광장의 소유권이 민인들에게 옮겨진 것이 이날이라는 주장에 이견을 가진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을 성싶다. 1987년 6월 9일, 연세대 정문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쓰러진 이한열은 27일 만인 7월 5일 숨을 놓았다. 그가 피격 당하고 숨을 놓을 때까지 민인들은 광주의 피칠갑으로 탄생한 전두환 정권과 사생결단의 승부를 벌였다.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수용이라는 요란한 사기극 이후 항쟁의 열기가 식기 시작하고 숨을 놓은 그의 장례식은 연세대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영결식에서 故문익환 목사는 명연설을 남겼다. 그것은 수사학으로 또 선전술로 구성된 연설이 아니었다. 그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전태일 열사여. 김상진 열사여. 장준하 열사여. 김태훈 열사여. 황정하 열사여. 김의기 열사여. 이재호 열사여. 이동수 열사여. 김경숙 열사여. 진성일 열사여. 송광영 열사여. 박영진 열사여...박종철 열사여... 광주 2천 영령이여..." 불려진 이름엔 학생도 있고 노동자도 있었다. 모두가 역사의 역류를 순류로 바꾸고자 자신의 삶을 담겨쓴 민인들이었다. 문익환 목사는 다만 죽은 자들의 이름을 불러 산 자들의 가슴에 불을 당겼다.

광주의 아들 이한열은 어머니 배은심 여사와 함께 광주로 향했다. "한열아 가자. 이제 우리 광주로 가자." 어머니의 피맺힌 몸부림과 함께 광주로 가기 전 이한열이 향한 곳은 서울시청 광장이었다. 그날 이전 수천 수만 수십만 갈래의 흐름으로 1987년 6월을 관통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광장에 모였다.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꽉 들어찬 사람들의 홍수였고 사태였다.

이날 우리 현대사에 광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총칼을 앞세워 권력을 찬탈한 자들도 언론을 앞세워 민인들을 무민(贅閥)케 한 자들도 이날 모인 이들에게 광장의 소유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 앞 광장에 모였기에 누군가의 통제가 통할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할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 질서가 있었고 평화가 있었다. 그날 그곳에 모였던 이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났지만 가슴 속으로는 뿌듯함이 솟았을 것이다. 이한열의 상여 앞에서 시민들은 조기게양을 외친다. 광장 주변의 모든 건물 태극기가 조기로 바뀌었고 마지막까지 버티던 서울시청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 의해 태극기의 높이가 낮아졌다. 불과 보름전만 해도 그곳에 열명이 모이건 백명이 모이건 권력은 최루탄과 곤봉으로 응수했지만 이날은 그러지 못했다. 태극기를 조기로 만든 이들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한 날이었다. 그날로 우리 현대사에 광장의 소유권은 시민에게 이전되었다.

2002년 월드컵을 응원하던 붉은 악마의 함성도, 미군 장갑차에 쓰러진 신호순과 심미선을 기억하자는 촛불도, 2008년 미친 소를 수입하지 말라는 외침도 87년 7월 9일 열린 광장의 후예들이었고 그 소유권은 보란 듯이 시민들에게 유전되어 왔다. 그 뿐인가. 물대포로 농민의 목숨을 멈추게 하고 광장의 소유권을 다시 찬탈하려했던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것도 광장에 서있던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광장의 소유권이 다시 민인들에게 돌아 온 날, 그날 이후 우리 현대사는 민인들이 역사의 샘을 만들고 마침내 강이 되어 바다로 이르는 변함없는 이치를 보여주고 있다.

